



IMF의 세계경제전망 상향 조정과 정책권고

이해랑 연구원

■ 국제통화기금(IMF)은 2014년 1월 21일 세계경제전망 수정보고서(WEO Update; Worlds Economic Outlook Update)를 발표함.

- 세계경제전망 수정보고서를 통해 IMF는 선진국의 경기 회복을 기반으로 세계경제성장률이 2014년 3.7%, 2015년 3.9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.
 - 이는 2013년 10월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치보다 소폭 상향조정된 수치임.
 - 2014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미국 2.8%, 유로존 1.0%, 일본 1.7%이며, 물가상승률은 선진국 1.7%, 신흥국 5.6%수준으로 전망됨.¹⁾

■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2014년 2.2%, 2015년 2.3%로 전망됨.

- 201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13년 10월에 비해 0.2%p 상승한 것임.
- 미국은 내수증가에 힘입어 2014년 2.8%, 2015년 3%의 성장이 전망됨.
- 유로존의 경우 2014년 1.0%, 2015년 1.4%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.
 - 이는 유로존의 최근 경기 침체 국면에서 회복기로의 전환을 반영한 결과이며 수출 증가가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- 일본의 경우 2014년 경기부양책이 소비세 인상 효과를 일부 상쇄하여 2014년에는 1.7%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.
 - IMF의 2013년 10월 전망에 비하여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2015년 성장률은 1.0%로 전망됨.

1) 우리나라는 WEO Update에는 포함되지 않음.

- 반면 신흥국 경제성장률은 2014년 3.1%, 2015년 5.4%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음.
 - IMF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014년과 2015년 각각 약 7.5%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고, 브라질, 러시아 등의 신흥국은 내수 부진이 예상되어 2013년 10월 전망보다 하향 조정됨.

- IMF는 선진국의 과도하게 낮은 인플레이션과 신흥국의 금융·자본시장 불안을 세계경제 위험요인으로 제시하며 선진국의 경우 확장적 통화정책 지양을, 신흥국의 경우 잠재적 자본유출입 위험에 대한 대비와 긴축정책 고려를 권고함.
 - 예상보다 낮은 선진국의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 시 실질이자율 및 채무부담 상승 위험을 초래할 것이고 신흥국의 불안요인은 기업부채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서 비롯될 것으로 예상함.

(IMF, 기획재정부 등)